

교보문고 상반기 결산 리포트 소설 '맑음', 인문 '흐림', 학습 '열풍'

글_홍석용 교보문고 홍보팀

2005년 상반기 동안의 독자들의 동향을 살펴볼 때 소설분야의 인기, 인문분야의 불황 속 길 찾기와 아동분야의 교육적, 학습적 경향 확대 등이 눈길을 끈다.

소설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판매 성장폭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 50위권 내에도 진입 소설이 2종이나 늘었다. 소설분야에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등을 앞세운 외국소설이 상위 10위권 내 7종이나 점유해 지속적인 외국소설의 저력을 유감 없이 선보였다. 그 와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여성작가들의 활약으로 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을 필두로 김별아, 한강, 은희경, 공지영 등이 새로운 작품을 일거에 선보이며 강세를 보였다.

인문분야로 눈길을 돌리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더 어두워진 듯하다. 그런 때문일까. 상반기 인문분야 베스트셀러들의 길 찾기는 더욱 빛나 보인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인문 분야 1,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강의(나의 동양 고전 독법)》《미처야 미친다》가 고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재해석, 과거를 통한 현실의 재발견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야심만만 심리학》, 《유쾌한 심리학》《사람 VS 사람》《심리학의 즐거움 1》 등 심리학 관련서가 분야 10위권 내에 4종이나 자리한 현상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적 환경 속의 독자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동분야에서는 일반 아동만화를 포함해 교육적, 학습적 경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아동 및 아동만화 분야 10위권 내 다수의 책들이 창작동화가 아닌 교육 및 학습적 목적의 도서들이다. 열풍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를 끈 《마법천자문》의 인기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반기는 상반기의 경향이 더욱 짙어지는 추세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니아급 소설독자들을 확보한 유명저자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설의 인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한 축을 일본소설들의 강세가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들로 인해 기존 소설들의 재출간 또한 예상된다.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상반기 히트 경제경영서인 《블루오션전략》의 원리와 개념을 함께하는 경제경영서의 출간과 인기가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계의 이슈로 점점 더 부각되어짐에 따라, 학습분야의 논술 관련서에 대한 관심과 인기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분야의 이러한 경향은 아동분야 및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